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한정호



마침내 미디어법이 통과되었다. 이제 신문과 방송, 대기업들은 새로운 미디어 산업에 뛰어들기 위해 분주하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미디어의 폭발과 팽창은 예상하지 못한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온다.

MPR 시대와 저널리즘의 위기

(마케팅 PR)

케팅의 무기가 마케팅 PR (이하 MPR)이다. 노스웨스트 대학의 토마스 헤리스 교수 같은 사람은 이제 광고의 시대가 가고 MPR의 시대가 만개한다고 장담한다.

광고의 자리가 MPR로 대체된다면 무슨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기업들로서는 한없이 늘어난 미디어의 지면과 프로그램을 직접 공략해서 자신들의 회사나 브랜드, 제품의 이름이 나타나도록 한다.

는 PPL (영화 속에 특정 제품이 등장하게 만드는 마케팅 기법)로 가득 찬다.

이제 공중파와는 달리 규제가 약한 케이블 TV의 종합편성채널에는 여러 형태의 MPR이 난무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엘리트 신문이나 공영방송의 출현을 기대하기 힘들다.

다. 광고가 부족해 재원이 약해진 신문과 방송은 정부와 기업이 제공하는 퍼블리시티 (보도자료)에 크게 의존한다.

MPR 시대의 도래는 마케팅에는 절호의 기회이지만 저널리즘에는 큰 위기를 결과적으로 유료광고는 줄고 비광고 미디어 공략형태의 마케팅전략이 늘 것이라고 내다본다.

MPR 시대의 도래는 마케팅에는 절호의 기회이지만 저널리즘에는 큰 위기를 결과적으로 유료광고는 줄고 비광고 미디어 공략형태의 마케팅전략이 늘 것이라고 내다본다.

다. 어떤 영화는 제벌사로부터 수십억의 협찬을 받고 그것이 기획에 포함되어 PPL로 나타나 마치 기업홍보영화를 방불케 한다.

미디어의 뉴스거리를 만들기 위한 고의적 이벤트를 기획하는 것이 MPR의 가장 큰 목표이기도 하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엘리트 신문이나 공영방송의 출현을 기대하기 힘들다.

다. 광고가 부족해 재원이 약해진 신문과 방송은 정부와 기업이 제공하는 퍼블리시티 (보도자료)에 크게 의존한다.

MPR 시대의 도래는 마케팅에는 절호의 기회이지만 저널리즘에는 큰 위기를 결과적으로 유료광고는 줄고 비광고 미디어 공략형태의 마케팅전략이 늘 것이라고 내다본다.

시설

추석 앞둔 지방경기 부양책 시급하다

일부 경제지표가 호전되는 등 실물경제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과는 대조적으로 지역 경제가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낙관론과는 달리 광주·전남 지역 경제는 아직도 한방종이다. 추석에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으나 '추석 경기'마저 기대하기 힘들 정도다.

신종플루 행사 '무조건 취소' 능사 아니다

신종플루의 영향으로 대규모 행사와 축제들이 취소되면서 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와 관련 업계가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2009광주세계 광엑스포"를 비롯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광주김치문화축제, 명랑대첩축제, 전남·제주 국제요트대회 등 크고 작은 행사

평균 상승률은 11년만의 최고치인 9.5%를 기록했다.

특히 지방 건설업계는 '민사' 상태다. 과격적인 할인에도 아파트 분양시장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경제 정책은 수도권 위주여서 지방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지역별 실정에 걸맞은 현실성 있는 정부 정책이 요구된다.

사 책임도 묻겠다'고 했다. 사실상 행사 취소로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행사 개최 여부는 정부가 강압하는 것보다 지자체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로 칼럼

강채미



40대의 간에 위험하다. 2005년에 발표된 국내 사망자 원인 순위에 따르면 간질환이 6위, 특히 40대 사망원인의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되는 것이 중요하다.

간을 지키자

양면이 그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 자칫하면 큰 병을 얻을 수도 있다.

지 못하면 간의 기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각각의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되도록 하루 세 끼를 규칙적으로 먹는 습관이 중요하다.

'실업계고'에 대한 편견, 인재 키우는데 걸림돌

우리들 큰아들은 요리를 배운다며 실업계고교로 진학해 공부하고 있다.

주는 이분법이 따라다닌다. 이런 편견은 언제쯤 사라질까.

기고

이종근



사람에게 첫인상이 중요하듯 처음 찾게 되는 나라와 도시의 모습은 누구에게나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

살기 좋은 도시 만들어가는 人本 광주

문인지도 모르겠다. 문명의 발상지라는 이미지는 역사 속에 사라져 버린 듯 사람들의 지친 뒷모습은 마음을 안타깝게 하기에 충분했다.

시이고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에 광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경관 취약지 개선 시범사업은 인간 중심의 도시를 설계하는 것을 큰 목표로 두고 있다.

쌀의 효능·건강성 적극 홍보해 소비 늘려가야

아침에 등교하는 아이들이 밥 먹는 것을 자꾸 기피한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처럼 밥을 안 먹는 현상은 우리집만의 일은 아닌 듯하다.

다 2.4%나 줄어든 것이라 한다. 하지만, 최근 몇몇 시설에는 먹을 쌀이 없었지만, 보릿고개 시절에 너무 많아 오히려 쌀 소비가 줄었다

無等鼓

'투소어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 등으로 유명한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모험심이 넘치는 투자가이기도 했다.

9월의 망령

증시에서 9월은 특히 잔인한 달이었다. 작년에도 리먼브러더스가 붕괴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을 쳤다.

증시에서 9월은 특히 잔인한 달이었다. 작년에도 리먼브러더스가 붕괴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을 쳤다.

9월의 망령

아 차익을 챙기는 분위기 때문에 잠깐 내린 것이라는 긍정적 견해가 우세하다. 긍정의 힘이 경기회생의 불쏘시개 역할을 기대한다.

Table with Kwangju Ilbo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website.